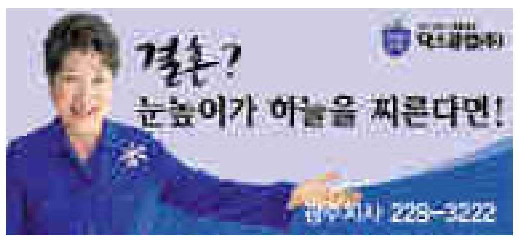
光州日報 Weekend



제1758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10월 21일** (음력 8월 30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1(土) 맑은 뒤 구름많음 13 / 26℃
22(日) 흐리고 비 15 / 22℃

News

- 교원평가제 2008년 실시 ③
- 광주시교육감 선거 판세 ④
- 광주 금4 ·전남 금7 추가 ⑱

- 김재박, LG 새 사령탑에 ⑱

Jeollado

- 그 사람-고재청 前 의원 ⑦

Entertainment

- 리메이크 '성별파괴' 바람 ⑧
- 영화, 사랑에 푹 빠지다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은행 ⑬

장애아와 함께 한 '사제의 길' 50년…천노엘 신부

사제 서품 50년과 '그룹홈' 활동 25주년을 동시에 맞은 '장애인들의 천사' 천노엘 신부가 복지관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대화는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에 묻히고 싶습니다"

81년부터 '그룹홈'서 장애인과 생활
"그들은 봉사대상 아닌 소중한 가족"

지난 18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이야기하는 천노엘(74·패트릭 노엘 오닐) 신부의 얼굴에서는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머리와 깊게 파인 주름이 육체적 나이를 말해주고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그 세월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우리 '친구들' 덕택에 젊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제 실제 나이를 알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지난 18일 '장애인들의 수호천사' 천노엘(엠마우스 복지관장) 신부를 만났다. 올해는 천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은 지 꼭 50년이 되는 해다.

또 21일은 천 신부가 198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광주 주월동 주택가에 설립한 '그룹 홈'(장애아들과 일반인이 함께 거주하는 일반주택. 장애아 수용시설과 달리 사회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25주년이기도 해 경사가 겹쳤다.

천 신부는 지난 1956년 아일랜드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이듬해 광주에 왔다. 한국땅을 밟을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오랜 세월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다.

천 신부는 50년간 광주·전남 지역에 머물며 장애인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다.

아일랜드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천 신부는 5살 무렵 한 선교사가 나병 환자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를 보고 사제의 길을 결심했다. 21년간 선교 활동에 주력했던 그가 1981년부터 '장애인특수사목'에 뛰어든 계기는 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죽음이었다.

"당시 19살이던 '여화'라는 이름의 소녀가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연고가 없던 그를 병원에서는 해부용 시체로 사용하게 해주면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여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절하고 직접 교회 묘지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화의 묘비에 새겨진 '나를 용서하시렵니까, 교회를 용서하시렵니까. 나는 긴긴 생활 당신을 외면했습니다'는 말은 천 신부의 평생 금언이 되었다.

"이제 서서히 하느님께 가는 준비를 할 때죠.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한 평 땅만 있다면 이 곳, 광주에 묻히고 싶습니다."

천 신부는 장애인이 봉사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임을 강조했다. 지난 1997년 '제1회 장애인 인권상' 수상에 대해 '봉사를 이유로 상을 받으면 또 다시 '너와 나'로 나뉜다'며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천 신부는 또 지나친 '일등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하는데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1위라고 해요.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공동체 커뮤니티'를 강조한 그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혼혈아 등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美, 北선박 1척 추적

무기적재 의심…韓·日 "北核불용 긴밀공조"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처음으로 군장비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1척이 자국의 항구를 출발한 것을 탐지, 추적중이라고 미국 CBS방송이 19일 전했다.

〈관련기사 2면〉

방송은 이 선박의 구체적인 적재화물과 행선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의 선박이 제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인 핵이나 미사일 등 관련 물질이나 장비를 실은 것으로 확인되면 유엔 결의 1718호에 따른 첫 해상검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도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나 테러단체 등에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할 경우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룻만에 나온 것이다.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AFP통신에 방송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선박의 과거활동이 이번 추적 작업의 주된 이유임을 암시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2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국제 평화·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불용'의 단호한 입장 하에 상호 긴밀한 조율을 통해 공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장관은 특히 유엔 결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이 처한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유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0일 중국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외교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權부총리 "사실상 불황"

경제정책 수장 시인
내년 경기부양 시사

권오규 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사실상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부총리는 20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GNI)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 수장이 '사실상 불황'이라고 언급할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안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권 부총리는 "올해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1.4분기 가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북핵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거시경제정책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내년 거시경제정책 조합은 여러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은 경기중립적이지만 분기별로 증폭이 예상되므로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타당성 조사) 등을 12월 중에 마치고 1월 들어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5%의 GDP 성장이 예상되는데도 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해 소득이 소폭 늘어나는데 그침에 따라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을 두고 부총리가 '사실상 불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규모는 성장하는데 국민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가 지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